

寺址서 국보급 통일신라 청동정병 발견



삼척의 사지에서 통일신라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정병(靑銅淨瓶)이 출토돼 관심을 끈다. 대부분의 국보·보물급 정병이 고려시대 문화재임을 감안하면 정병의 기원시기를 한참 상향시키는 유물로 평가된다.

조계종 산하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임강)와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현재 발굴 중인 '삼척 흥전리 사지' 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제작이 추정되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청동정병 2점(높이 약 35cm)이 출토됐다'고 6월 2일 밝혔다.

흥전리 사지에서 출토된 청동정병은 매우 희소한 통일신라 청동정병 가운데 가장 완전한 형태로 출토됐으며, 조사를 통해 유적(흥전리 사지)과 유물(청동정병)과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청동정병은 스님들이 사용하는 정수(淨水)를 담은 물병으로, 대승불교에서 비구가 반드시 몸에 지니는 십팔물

불교문화재연구 · 문화재청, 삼척 흥전리 사지서 발굴

(十八物) 중의 하나이다. 또한 부처·보살 앞에 정수를 올리는 공양구이기도 하다.

청동정병은 불교가 융성했던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에 주로 제작되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통일신라 청동정병은 군위 인각사 발굴조사 시 일부 훼손된 상태로 출토된 2점과 부여 부소산에서 공사 중 수습된 1점 등 총 3점(비지정문화재)에 불과하다.



출토 당시 청동정병의 모습. 전문가들은 "통일신라시대 정병이 완벽한 상태로 발견됐다는 것은 기적과 같다"고 감탄했다.

군위 인각사지 청동정병 등 기준에 확인된 통일신라시대 유물들이 8세기 후반경의 작품이라면, 흥전리 사지 출토품은 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출토된 흥전리 사지 청동정병 2점은 국보로 지정된 고려 시대 청동정병인 '청동 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병'

(국보 제92호)보다 제작 시기가 앞선다. 청자로 만들어진 국보 제66호 '청자 상감연지원양문 정병'과 보물 제344호 '청자 양각갈대기리문 정병'도 고려 시대에 제작됐다. 사실상 '한국 정병의 원류'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유물인 것이다.

최응천(동국대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은 2일 열린 발굴보고회에서 "통일신라시대 정병이 깨진 곳이나 녹슨

현존유물 중 가장 완전 형태

국보·보물 정병 모두 고려대

발굴로 정병 기원 시기 상향

"정병 전래·기원 밝힐 문화재" '國統' 비편도, 사지 역할 주목

곳 하나 없이 완벽한 상태로 발견됐다는 것은 기적과 같다"면서 "불교미술의 전과 루트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통일신라시대 정병의 기원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라고 평가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이 2014년부터 발굴조사 중인 삼척 흥전리



사지에서는 그간 금당지(金堂址), 탑지(塔址) 등 주요 가람시설이 확인되었다. 특히, 신라 시대에 왕이 임명하는 승단의 최고 통솔자인 '국통(國統)'이 새겨진 비편(碑片)을 비롯하여 섬세하고 화려한 장식의 금동반(金銅半) 등 중요 유물이 발굴됐다. 이는 흥전리 사지가 당시 매우 위세가 높았음을 증명한다.

청동정병 2점의 보존처리와 정밀분석은 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센터)에서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미술사적 연구를 통해 유물의 가치를 규명하고 청동공예의 양식적 변천 과정 등을 밝혀내는 연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삼척 흥전리 사지를 포함해 연차적으로 시행 중인 주요 사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적에 대해서는 국가 지정문화재(사적) 또는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로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수 스님 소신공양 '6년' ... "대자비 기억"

조계종 사회부 등, 5월 31일 '6주기 추모다례제' 봉행

죽어가는 강과 생명들을 지켜내고자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 그 뜻을 널리 기억하고 이어가기 위해 사부대중이 한 자리에 모였다.

조계종 사회부와 문수스님선양사업회는 5월 31일 조계사 대웅전서 '문수 스님 6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300여 명 스님 및 불자들이 모여 문수 스님을 추모했다.

문수 스님은 2010년 5월 31일 오후 3시경, 경북 군위군 위천 제방서 4대강 공사 중지를 위한 소신공양을 결행, 세

남 49세, 법랍 25년으로 입적했다. 이날 법해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문수 스님이 보여준 대자비심을 이어 받아, 생명의 아픔을 우리 아픔으로 삼고 세상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4대강 100일 순례길을 걷고 있는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5월 31일 6년 전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한 위치를 찾아 추모제를 봉행했다. 불교

환경연대가 하루 전부터 과일과 밤, 탕국 등을 정성으로 마련한 자리에는 상임대표 법일 스님, 운영위원 중현 스님, 공동대표 행법 스님을 비롯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서 50여 명이 참석해 문수 스님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불교환경연대는 60일째 4대강 살리기 100일 순례길을 진행 중이다. 순례단에는 상임대표 법일 스님, 운영위원 중현 스님, 공동대표 행법 스님 등이 함께 하고 있다. 박이름 기자



조계종 환경위원장 수암 스님이 문수 스님 영정에 헌화하고 있다.

"콘텐츠 다각화로 세상에 佛法 밝힐 것"

월간 불광, 500호 발간 기념식서 향후 비전 발표

월간 '불광(발행인 지홍)'은 오는 6월 500호 발간을 앞두고, 5월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서 '500호 발간 기념 및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행사는 발행인 지홍 스님의 인사말에 이어 축

사, 불광 비전 선포, 범공양 후원 전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지홍 스님은 "사사로운 이윤이 목적이 아닌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겠다"는 목표를 있었기에 한 길로 걸어올 수 있었

다. '소리 없는 깃발'이 되길 바라며 '불광'을 창간하셨던 광덕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오늘이 미래를 향한 거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지축했다.

아울러 이날 월간 '불광'은 500호 기념 비전을 선포하기도 했다. 콘텐츠

다각화 △불교 안팎 경계서 생각하고 실천하기 △불교 가치 구현의 허브 역할 등의 다짐이다. 박이름 기자

"이웃과 더불어 행복 누릴 수 있는 길 열어주셨다"

천태종, 6월 2일 상월원각대조사 42주기 추모대제 정관계 인사 등 2만여 대중 참여 추모 열기 '후끈'

대한불교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 조사의 가르침을 기리고, 사상과 정신을 되새기는 추모의 자리가 마련됐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6월 2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서 사부대중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월원각대조사 열반 42주기 추모법요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대조사님의 지극한 가르침과 자애로운 미소는 우리 중도들의 마음 속에 밝게 빛나고 종단의 모든 도량을 장엄하는 밝

은 거울로 빛나고 있다"고 회고했다.

이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부회장 회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가 대독한 추모사에서 "상월원각대조사께서는 이 복잡한 세상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 이웃과 더불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며 "열반 42주기를 맞아 천태종 중도는 물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모든 종단이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국민 화합과 인류의 행복을 위해 정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김종규 천태종 중앙신도회장도 "오늘이 추모 법석은 대조사님의 원력을 되새기고 가르침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자리이며, 대조사님의 덕화를 더욱 널리 전하는 발원의 자리"이라며 "천태불자들은 이 가르침을 더욱 경건히 봉대해 중생계가 연화생으로 될 때까지 3대 지표를 삶의 바탕으로 삼고 주경야전의 종풍을 흐트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법요식에는 천태종 중창 도용 스님을 비롯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회정 정사, 조계종 원로의원 성우 스님, 김무성·이현승·오영훈·권석장·이철규 국회의원, 류



6월 2일 단양 구인사서 열린 추모법요식 모습

한우 단양군수, 한광수 금강대 총장, 이봉춘 천태불교문화연구원장 등이 동참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템플스테이,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과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5월 31일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템플스테이 발전과 홍보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달청이 문화사업단에 템플스테이 체험서비스 나라장터 등록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템플스테이 사찰은 백담사·심원사·영평사로 각각 정소

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곳이다. 이에 따라 템플스테이를 신청하는 데 있어 학교를 비롯한 정부, 공공기관 등의 행정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정양호 청장은 "문화사업단과 업무협약을 맺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정부기관이나 학교에서 템플스테이를 이용하는 데 편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제1회 법계문학상 공모

불교문학은 부처님 사상을 세상에 널리 펼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운문승가대학을 세계 최고의 비구니 전문 교육기관으로 키워 오신 명성스님의 원력에 의해 우수한 불교문학 작가를 양성하기 위한 법계문학상이 제정되어 작품을 공모합니다.

공모부문

장편소설, 장편동화

시상내역

대상 상금 1천5백만원 및 상패
우수상 상금 5백만원 및 상패
佳作 상금 3백만원 및 상패 (각 1명)

작품마감

매년 10월 31일

응모작품

장편소설(200자 원고지 1천매 내외)
장편동화(200자 원고지 5백매 내외)

응모자격

신인 및 등단 5년 미만

응모방법

1. 원고는 컴퓨터로 작성 A4 용지에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자기소개서 (불교문학에 대한 작가의 소신)
3. 작품 보낼 곳 →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1101호 [법계문학상 운영위원회]
※ 응모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모문의

문의 070-8880-8202, soosun1@naver.com, 팩스 0505-361-9565

시상일정

매년 12월 초

법계문학상 운영위원회

